

고대 백제 · 신라 · 일본의 초석 형태에 따른 공간위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patial hierarchy by the form of the basestone in ancient architecture between Baekje, Silla and Japan

한 옥* / Han, Wook

Abstract

The basestone is a kind of foundation part of the building and can be said to deliver the loads from the upper part to ground. It is the explanation of structural role for the basestone. But the basestone has been used as the decorative element in a building. So this study is on design of the basestone. First the type division can be studied as form of the basestones. Also the investigation of development aspect of them needs to as times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other goal of this study is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basestone from the comparison to the basestone in ancient Japan was initiated in the architectural technology from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Baekje rectangular basestones were used in static space for ceremony and circular ones were used in dynamic space for life. Also the basestones with joojwa(smoothing surface for sitting on column) were used for accessory buildings rather than main. In Silla the same type of basestone was made in a temple but according to hierarchy of buildings the sizes of them seem to have been different. The other side in Japan carved basestones were for the main buildings and for the accessory natural stones were used to.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the buildings the kinds of stones were different.

키워드 : 백제, 신라, 일본, 고대건축, 초석, 공간위계

Keywords : Baekje, Silla, Japan, Ancient architecture, Basestone, Spatial hier archy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초석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로서 기둥의 밑에 놓여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기단 등 지면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하지만 이것은 초석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이외에도 초석은 구조적 요소만이 아니라 건축물을 장식하는 의장적 요소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 건축에 있어서 연꽃 등 다양한 형태로 장식된 초석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더욱이 고대건축에서는 이후 시기보다 더욱 정교하게 가공되어²⁾ 의장요소로서 건물의 성격과 위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의 형태인 초석위에 기둥을 세우고 공포를 갖는 목조건축양식은 중국의 한(漢)나라의 영향으로 고구

려 등에서 이미 발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³⁾, 언제부터 초석을 의장의 요소로서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에 고구려의 2대왕인 유리왕의 기사와 관련하여 7각형 초석에 대한 언급이 있어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건축 의장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초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건축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소주제로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성에 대해 불교경전에 의해 해석한 정도이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석의 의장성과 그 표현

- 1) i.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ii. 장기인, 건축용어사전, 보성각, 1993.
- iii. 廣辭苑, 岩波書店, 1998.
- iv. 武井豊治, 古建築辭典, 理工學社, 2002.
- v.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8, p.117.

2)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3)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8, pp.21-23

4) "...聞柱礎間若有聲 就而見之 礎石有七稜...", 삼국사기 권제13 고구려본기 제1 유리명왕조

5) 김상태는 사천왕사 후면 동서 건물지 초석의 장식성에 대해서 불교경전에

* 정회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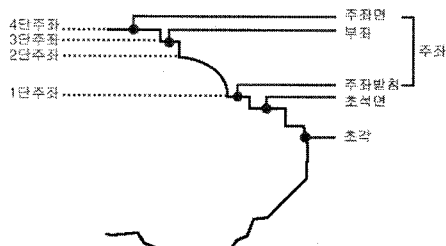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초석의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의 분류와 시대 및 공간위계에 따른 전개양상을 고찰하여, 초석을 통한 공간위계표현상의 차이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대상으로서 고대건축의 초석은 발굴 등을 통하여 많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원래의 위치에서 발견된 초석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 본래위치에서 옮겨진 경우가 많다. 이 경우의 초석은 그 형태를 알 수는 있지만 제작시기, 사용장소, 사용건물의 성격 등 초석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굴을 통해 초석의 사용위치와 시기, 사용된 건물의 성격 등을 비교적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고대사찰유적중 본래 위치에 잔존하는 초석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초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하였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굴보고서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비교연구대상으로서 고대 우리나라로부터 건축기술을 전래받은 일본의 사찰유적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성격이 명확하지 않지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석의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고구려의 초석은 북한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6~8C의 백제·신라 및 통일신라의 사찰유적 13곳의 초석을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飛鳥寺)를 비롯하여 헤이안[平安] 이전시기의 주요 유적 중 13곳의 초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유적은 <표 1>과 같다.

연구방법은 먼저 초석의 형태를 중심으로 실측·기록하여 정리한 후, 조사된 유적에서 사용된 초석을 시대별, 사용건물별, 형태별로 유형을 분류하고 시대적 변천과 사용건물의 성격과 위계에 따른 유형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의장요소로서의 초석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국가간의 초석을 통한 공간위계의 표현상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2. 초석의 개요



<그림 1> 초석각부명칭

(장기인, 『석조』, 한국건축대계7, 보성각, 1997. 내용정리)

2.1. 초석 각 부의 명칭

자연석을 그대로 초석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고대에는 대부분 자연석을 여러 형태로 가공하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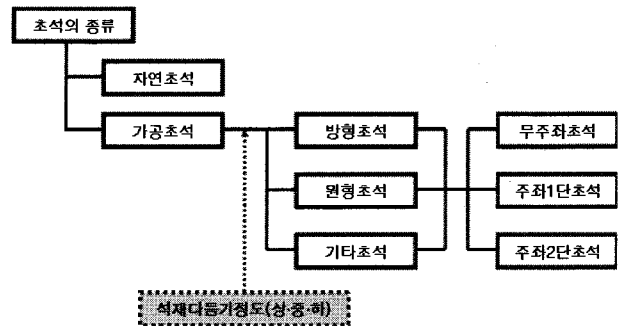
의한 해석을 하였다.

김상태,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1호, 20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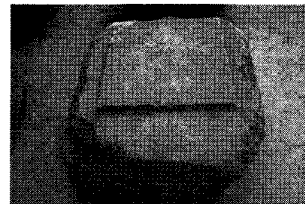
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주좌의 형태에 따라 방형주좌, 원형주좌, 팔각주좌, 연화주좌 등으로 분류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명의 편의와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초석 각부에 보다 상세하게 명칭을 부여한 장기인의 의견에 따랐다.6)<그림 1>

2.2. 초석형태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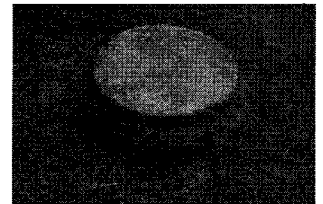
초석은 크게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자연초석과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가공초석으로 나뉜다. 가공초석은 그 주좌면의 형태에 따라 방형·원형·기타초석으로 나누며 또, 주좌의 유무에 따라 무주좌초석과 주좌초석으로 분류한다.7) 주좌초석은 또 그 단수에 따라 1단과 2단이 있다. 이외 특이한 초석으로 익산 미륵사지 금당의 방형판석 위에 단면이 마름모형태인 장주초를 올려놓은 것과 통일신라시기의 사천왕사 금당 후면 동·서 건물지의 건물 지붕모양으로 잘 다듬어진 초석 등이 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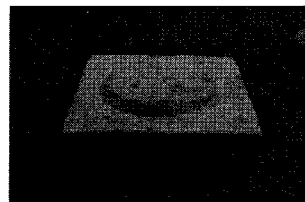
<그림 2> 초석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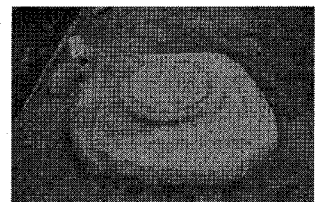
<그림 3> 방형초석-초각가공 하 (분황사 경내)



<그림 4> 원형초석-초각가공 중 (미륵사지 출토)



<그림 5> 주좌1단-초각가공 상 (미륵사지 출토)



<그림 6> 주좌2단-초각가공 하 (사천왕사 금당)

6) 장기인, 목조, 한국건축대계5, 보성각, 2003, p.23.

장기인, 석조, 한국건축대계7, 보성각, 1997, pp.74-75.

7) 초석면과 주좌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바닥과 관련하여 직접바닥면과 접하는 경우는 초석면으로, 그 위로 돌출되어 직접 바닥면과 접하지 않는 경우는 주좌로 분류하였다.

8) 이에 대해서 김상태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이 건물지를 문두루비법을 행하기 위한 계단으로 추정하였으며 초석의 형태를 석탑에서와 같은

<표 1> 주요 고대건축유적 초석형태 분류(한국-일본)

| 유적명 | 건립연대 | 건물명 | 초석위치 | 초석평면 | 주좌단수 | 초각가공 | 유적명 | 건립연대 | 건물명 | 초석위치 | 초석평면 | 주좌단수 | 초각가공 | | |
|-------|-----------|-----------|-----------|--------|------|------|---------------------|------------------|------------------|---------------------|----------|---------|--------|-----|----|
| 용정리사지 | 6C전기 | 금당 | 상층유구 | 자연석 | 없음 | 하 | 아스카데라 (飛鳥寺) | 588~609 | 김당 | | 원형 | 없음 | 하 | | |
| 군수리사지 | 6C중기 | 금당 | | 방형 | 없음 | 중 | | | 동금당 (609?) | 내·외진 차양간 | - 자연석 | - 없음 | - 하 | | |
| 정림사지 | 6C중기이후 | 강당 | | 방형 | 없음 | 중 | | | 강당 | | 원형 | 없음 | 하 | | |
| 능산리사지 | 567 | 김당 | 퇴칸 | 자연석 | 없음 | 하 | | | 중문 | | 원형 | 없음 | 하 | | |
| | | | 동실 | 방형/원형 | 없음 | 중 | | | 남문 | | 원형 | 없음 | 하 | | |
| | | 서회랑 | | 자연석 | 없음 | 하 | | | 서문 | | 원형 | 없음 | 하 | | |
| | | 공방지I | 퇴칸 | 원형 | 없음 | 상 | | | 회랑 | | 방형 | 없음 | 하 | | |
| | | 공방지II | 내진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원형 | 없음 | 하 | | |
| 금강사지 | 6C후기-7C전기 | 서회랑 | | 원형 | 없음 | 중 | 코우라이지 (高麗寺) | 7C전기 | 금당 | | 원형 | 없음 | 하 | | |
| 미륵사지 | 634 | 중금당 | 내·외진 | 방형 | 없음 | 상 | 오쿠야마쿠메데라 (奥山久米寺) | 7C전기 | 목탑 | 외진·사천주 | 원형 | 없음 | 하 | | |
| | | | 활주 | 기타 | 기타 | 상 | | | 금당(634) | | 방형 | 기타 | 하 | | |
| | | 동금당 | 내·외진 | 기타 | 기타 | 중 | | | 목탑(673) | | 방형 | 없음 | 하 | | |
| | | | 활주 | 원형 | 기타 | 상 | | | 강당(678) | | 방형 | 1단 | 하 | | |
| | | 서금당 | 내·외진 | 기타 | 기타 | 중 | | | 남문 | | 원형 | 없음 | 하 | | |
| | | 강당 | 내·외진 | 방형 | 1단 | 중 | | | | 회랑(634) |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동승방지 | 외진 | 원형 | 없음 | 상 | | | 보장 |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 동원동회랑 | | 원형 | 1단 | 중 | | | 중금당 | 내·외진 | 방형 | 1단 | 중 | | |
| | | 중원동회랑 | | 원형 | 없음 | 중 | | | 서금당 | | 방형 | 1단 | 하 | | |
| | | 중원서회랑 | | 원형 | 1단 | 중 | | | 목탑 | 외진우주 외진평주 | 방형 | 1단 | 하 | | |
| 서원서회랑 | | 원형 | 1단 | 중 | | | | 내진 | 방형 | 없음 | 중 | | | | |
| 서복사지 | 7C중기 | 동회랑지 | | 원형 | 없음 | 상 | | | 남문 | | 방형 | 1단 | 하 | | |
| 성주사지 | 9C중기 | 3차 금당 | | 방형 | 2단 | 중 | | | 회랑 | | 방형 | 없음 | 하 | | |
| | | | 3차 중문 | | 방형 | 2단 | 중 | | | 서승방 | | 방형 | 없음 | 하 | |
| 황룡사지 | 553 | 1차가람(569) | 금당(584) | 내·외진 | 방형 | 없음 | 하 | 모토야쿠시지 (本薬師寺) | 680~698 | 금당 | | 방형 | 없음 | 하 | |
| | | | 2차가람(645) | (외진) | 방형 | 1단 | 하 | | | 동탑 | 내·외진 | 방형 | 없음 | 하 | |
| | | 3차가람(854) | 서금당(7C초) | 차양간 | 방형 | 없음 | 중 | | | 1차 통일당 |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 | 내·외진 | 방형 | 없음 | 하 | | | 1차 남회랑 |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 목탑(645) | 사천주 | 방형 | 없음 | 하 | | | 2차 동회랑 |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 | 1차가람내진 | 방형 | 없음 | 하 | | | 소자문 |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 2차가람내진 | 방형 | 없음 | 하 | | | 조당원 남문 | | 원형 | 1단 | 하 | | |
| | | | 외진 | 방형 | 없음 | 하 | | | | | 원형 | 없음 | 하 | | |
| | | | | 방형 | 없음 | 중 | | | 나성문 | | 방형 | 없음 | 상 | | |
| | | | 강당 | 내진 | 방형 | 없음 | 중 | | | 금당 | 내·외진 | 방형 | 없음 | 하 | |
| | | 외진 | 방형 | 없음 | 하 | | | | 차양간 | 방형 | 없음 | 하 | | | |
| | | 방형 | 없음 | 중 | | | | 서탑 | 외진우주 외진평주 | 방형 | 없음 | 중 | | | |
| | 중문 | 내·외진 | 방형 | 없음 | 중 | | | 남대문 |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 종루경루(854) | | 방형 | 없음 | 중 | | | 서승방 | | 자연석 | 없음 | 하 | | | |
| | 동·서회랑 | | 방형/원형 | 없음 | 중 | | | | | | | | | | |
| | 남회랑 | | | 방형 | 없음 | 중 | | | 대극진 | 외진 | 원형 | 없음 | 하 | | |
| | | | | 방형 | 2단 | 중 | | | | 내진 | 방형 | 1단 | 중 | | |
| 분황사 | 634 | 1차중건(755) | 금당(755) | | 방형 | 2단 | 하 | 쿠니큐우 (恭仁宮) | 740 | | | | | | |
| | | | 동회랑 | | 방형 | 없음 | 하 | | | 아사시모코쿠분지 (山城國分寺) | 746 | 목탑 | | 원형 | 1단 |
| 사천왕사지 | 679 | 금당 | 내·외진 | 방형 | 2단 | 하 | | | 토우쇼우다이 (唐招提寺) | 759 | 금당 | 내·외진 | 원형 | 없음 | 하 |
| | | | 동·서탑 | | 방형 | 없음 | 중 | | | | | 목탑 | | 원형 | 없음 |
| | | 후면 동서건물 | | 기타 | 기타 | 중 | | | | | 강당 | 외진 | 자연석 | 없음 | 하 |
| | | 서회랑 | | 방형 | 2단 | 중 | | | | | | 내진 | 방형 | 없음 | 중 |
| 감은사지 | 682 | 금당 | 내·외진 | 방형 | 2단 | 중 | | | | | | 원형 | 없음 | 하 | |
| | | | 강당 | | 방형 | 2단 | 중 | | | 쇼케하이 (正家廢寺) | 8C중기 | 금당 | | 자연석 | 없음 |
| | | 공방 | 외진 | 방형 | 2단 | 중 | | | | | 목탑 | | 자연석 | 없음 | 하 |
| | 서·남회랑 | | 방형 | 2단 | 중 | | | | | | | | | | |
| 고선사지 | 7C후기 | 금당 | | 원형 | 기타 | 중 | | | | | | | | | |
| | | | 회랑 | | 원형 | 1단 | 중 | | | | | | | | |
| | | | | 원형 | 없음 | 중 | | | | | | | | | |
| | | 비각지 | | 방형 | 2단 | 상 | | | | | | | | | |
| | | 복건물지 | | 원형 | 1단 | 중 | | | | | | | | | |
| | | | | 원형 | 없음 | 중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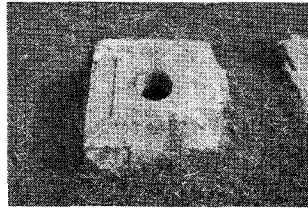
추년장식으로 보았다.

김상태,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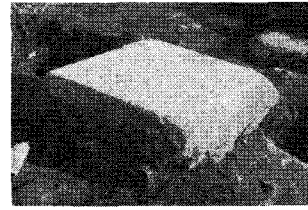
제16권1호, 20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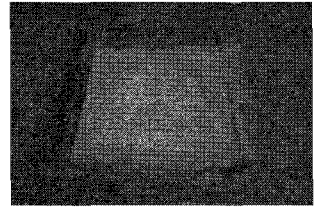
<그림 7> 기타초석(1)
(미륵사지 서금당지)



<그림 8> 기타초석(2)
(사천왕사 추정 단석지)



<그림 9> 정림사지 강당 초석



<그림 10> 미륵사지 강당 초석

또한 가공초석은 초각의 다듬기정도에 따라 사천왕사 금당지와 같이 채석상태의 것(석재가공 하)과 망덕사지 동탑지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다듬은 것(석재가공 중), 그리고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정연하게 다듬은 것(석재가공 상)의 세 종류가 있다.

3. 초석형태의 시기적 변천

3.1. 백제·신라에서의 초석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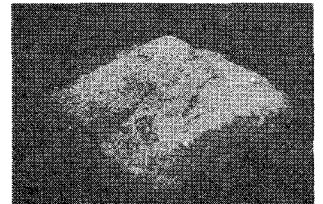
(1) 백제

백제의 경우 사비시기이전에 사용된 초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⁹⁾ 조사대상유적 가운데 가공초석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6C중기의 능산리사지로 금당 등 주요건물에서는 초석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강당과 공방 등에는 자연초석과 함께 원형 또는 방형초석면의 초석이 사용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의 군수리사지와 정림사지 등에서는 방형초석면의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는 7C중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자연초석은 6C중기까지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로는 방형초석면의 초석이 일반적인 형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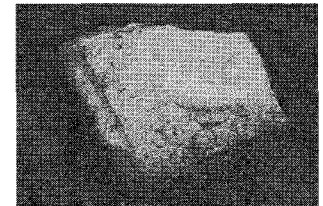
한편 원형초석면의 초석은 금강사지에서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용은 7C 전기 이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좌는 7C중기의 미륵사지에서만 발견된다. 이때 주좌모양은 1단의 원형이며, 방형주좌 혹은 2단 주좌를 사용한 예는 없었다. 미륵사지의 동서 금당의 초석은 방형의 판석을 놓고 별석으로 초석을 올려놓는 특이한 형태이다. 또한 강당지 후면도 원형의 판석위에 원형의 초석을 올려놓은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증으로 된 초석의 사용은 미륵사지에서만 나타난다. 초각의 가공형태를 살펴보면 백제에서는 <그림 3>과 <그림 6>에서 보이듯이 석재를 가공하지 않고 채석상태인 채로 초석면을 돌출시킨 초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석재를 초석면보다 조금 크게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거나 일부 초석면의 크기로 잘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시대에는 석재를 일정한 크기로 가공한 후 상면에 초석면과 주좌를 돌출시키는 형태의 초석이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신라·통일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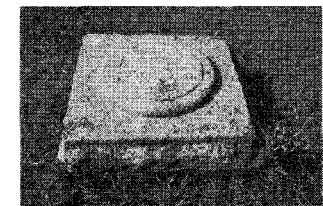
신라시대의 유적으로는 황룡사지와 분황사가 있으나 분황사에서 발견된 초석은 8C중기의 것으로 여겨지므로 황룡사지가 유일하다. 6C후기에 건립된 황룡사지 금당의 경우 방형초석면의 초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9C중기에 건립된 종루·경루로 이어진다. 또한 통일신라시기인 사천왕사지와 감은사지에도 이러한 형태가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황룡사지 금당에서는 <그림 12>과 같이 특이한 형태의 초석이 보이는데 이는 자연초석상면에 방형초석면을 만들고 그 위에 원형주좌면을 만들었으나 쇠시리없이 면을 비스듬히 거칠게 다듬은 것이다. 한편 원형의 초석면은 6C중기 황룡사지에서 잠시 보이지만 이후 보이지 않다가 7C후기 고선사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고선사지의 원형초석면은 일



<그림 11> 황룡사지 금당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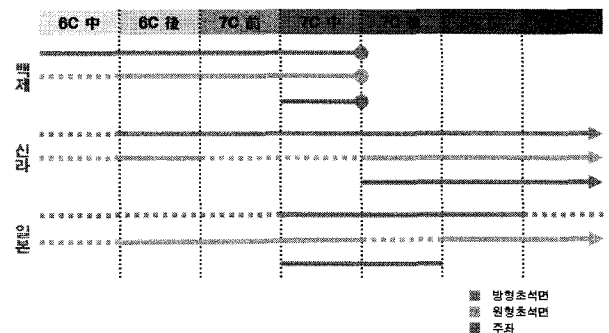


<그림 12> 황룡사지 금당 외진초석



<그림 13> 망덕사지 금당 초석

부건물만이 아니라 유적 내 대부분의 건물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일반적인 형태의 초석으로 여겨진다. 주좌의 사용은 백제보다 늦은 7C후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전에는 없던 2단 주좌의 초석도 있다. 이것은 황룡사목탑의 건립 등에 관여하였던 백제의 발전된 건축기술이 신라의 삼국통일과 함께



<그림 14> 시기별 초석형태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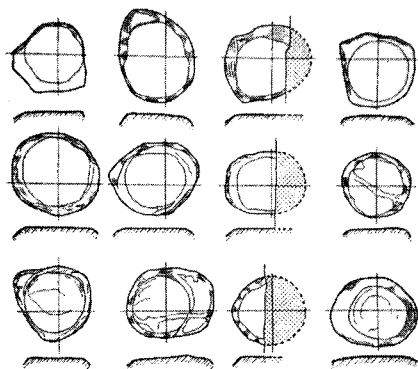
9) 공주 추정왕궁지에서 방형의 초석면을 갖는 초석이 2개 발견되었으나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될 뿐 명확하지는 않다.
金永培, 百濟王宮跡, 百濟의考古學, 雄山閣, 1972, pp.166-168.

보다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초각의 가공형태를 보면 백제에서의 초석과는 반대로 8C중기까지 석재를 일정한 크기로 가공하지 않고 넓은 자연석의 석재 상면에 초석면과 주좌를 만든 초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석재가공 기술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건축시공기술의 측면에서 초석하부기초와 관련지어 볼 때 신라의 경우에는 초각을 넓게 남겨 보다 큰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3.2. 일본에서의 초석변천

(1) 6C 후기·7C 전기

일본 건축에서 초석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한반도에서 불교건축이 전래된 6C후기부터이다. 이 시기 건축기술의 수용은 백제로부터 목공, 석공 등 기술자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사찰조영에 참여함으로써 전달된 것이다.¹⁰⁾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당시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¹¹⁾ 588년 일본 최초의 사찰로 여겨지는 아스카데라[飛鳥寺]에서는 주로 원형초석면의 단순한 형태를 갖는 초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방형초석면의 초석이 일반적이었던 것과는 비교될 뿐만 아니라 특히 백제의 건축기술자에 의해 지어진 사찰인 점을 감안할 때 차이점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아스카데라의 건축기술 및 양식은 백제의 것을 따르고 있으나 그 배치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1탑3금당형식을 따르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이해할 수 있다.¹²⁾ 7C전기에 고구려계 도래인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코우라이지[高麗寺]¹³⁾에는 유사한 형태의 초석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백제의 기술자들에 의해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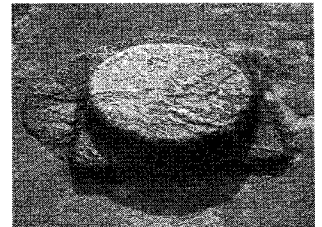


<그림 15> 아스카데라 중문지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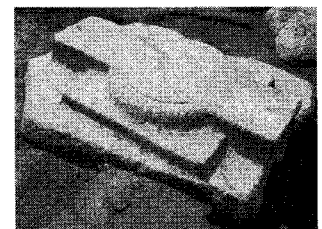
소수의 인원으로는 감독관의 역할을 하면서 현지의 기술자를 활용하였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방형초석면의 초석은 아스카데라의 회랑에서 보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7C 중기의 야마다데라[山田寺]에서이다. 이 시기에는 아직 주좌를 갖는 초석은 보이지 않는다. 초각의 형태는 모두 가공하지 않고 자연석의 상면에 초석면과 주좌를 만든 형태로, 이러한 형태는 백제에서보다는 주로 신라에서 7C중기 이전에 사용된 것이다.

(2) 7C 중·후기

이 시기는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으로 한반도로부터 많은 이주민이 일본에 유입된 시기이다¹⁴⁾. 타이카카이신(大化改新)이후 율령제도에 기초한 국가시스템을 완성하던 시기로 선진의 문화를 갖고 있던 이들 도래인의 등용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천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궁성의 건설에는 이런 도래인의 참여가 두드러지며¹⁵⁾ 따라서 우리나라로부터의 건축적 영향이 가장 많은 시기로 판단된다. 이 시기 초석형태의 특징은 방형초석면과 주좌의 사용이다. <그림 14>를 보면 방형의 초석면은 7C중기와 후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일부 8C전기의 야쿠시지[藥師寺]에도 보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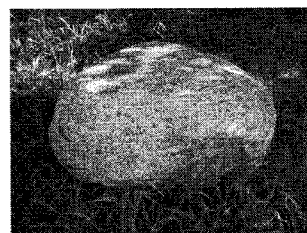


<그림 16> 카와하라데라 중문 초석



<그림 17> 연화주좌(日本 山田寺)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③, 2007)

야쿠시지는 아스카에 있던 모토야쿠시지[本藥師寺]의 이건(移建)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좌 또한 방형의 초석면이 사용되는 7C 중기와 후기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야마다데라와 카와하라데라[川原寺]에서 나타나며 아직 2단의 주좌는 사용되지 않고 1단의 주좌만을 만들고 있다. 특히 주좌의 모양은 초석면에 내접하는 원형으로 우리나라의 주좌와 초석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갖는 형태와 대비된다. 이와 함께 야마다데라에



<그림 18> 헤이안쿄 1차대극전 남회랑 초석



<그림 19> 쇼케하이 지 금당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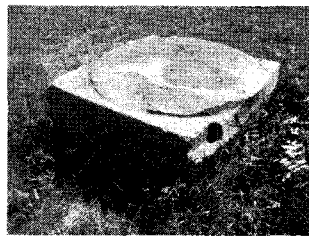
10) 藤井恵介·玉井哲雄, 앞의 책, p.36
 11) "...寺工太良未太·文賈古子, 鑑盤博士將德白味淳, 瓦博士麻奈文奴·陽貴文·倭貴文·昔麻帝彌, 畫工白加...", 일본서기 권제21
 12) 북한학자인 손량구는 아스카데라의 1탑3금당형식의 배치와 관련하여 고구려적 성격을 혜자(慧慈)라는 승려의 활동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손량구, 아스카사의 고구려적 성격,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9.03, pp.31-34.
 13) 코우라이지는 7C전기 고구려 도래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그 배치는 카와하라데라와 유사하다. 高麗寺跡第6次發掘調査現地説明資料, 2005.12.

14) 당시 일본 인구의 30%정도가 도래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井上滿郎, 古代の日本と渡來人, 明石書店, 1999, pp.60-62.

서는 주좌면에 연꽃을 새겼다. 이런 형태의 초석은 비슷한 시기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된 예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이곳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형태로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7C중기 혹은 야마다테라에서만 사용된 초석형태로 볼 수 있다.

(3) 8C 전기 이후

8C전기 궁도(宮都)를 아스카에서 헤이조우쿄우[平城京]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나라시대의 주요 건축물은 아스카로부터 이축한 것이다. 이때 초석도 함께 옮겨진다. 이러한 건축물의 이축 경향은 잦은 궁도의 변경과 짧은 궁도건설기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초석의 재사용은 석재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공 역시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⁶⁾ 8C중기의 토쇼다이지[唐招提寺]의 초석에는 원형의 초석면이 사용되고 있으며, 헤이조우쿄우[平城宮]에서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자연석의 상부만을 평평하게 가공한 초석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후 8C중기의 쇼케하이지[正家廢寺]에서는 석재의 상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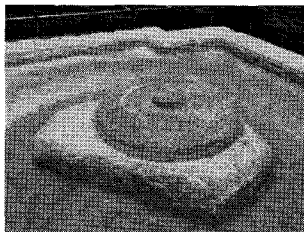


<그림 20> 쿠니큐우 대국전 초석

저 가공하지 않은 자연초석을 사용하고 있다. 주좌는 이전의 시기와는 달리 사용되지 않았으며 다만 쿠니큐우[恭仁宮]의 대국전¹⁷⁾ 초석과 이의 전용인 야마시로코쿠분지[山城國分寺]에서는 1단의 주좌를 갖는 초석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주좌의 형태는 백제와 신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제와 신라의 경우 방형의 초석면 내부에 초석면보다 작게 원형주좌를 만들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방형의 초석면에 내접하도록 원형주좌를 만들고 있다. 8C중기 이후 계속되는 각지의 코쿠분지[國分寺]의 건립에도 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초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시기에 특이한 것은 토쇼다이지와 야마시로코쿠분지의 초석에서 나타나는 주좌면 중앙의 돌기이다. 이것은 초석과 기둥의 긴결성을 높여 기둥이 움직이지 않도록 함으로서 건물의 안정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



<그림 21> 토쇼다이지 금당 초석



<그림 22> 카와하라테라 서금당 초석

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카와하라테라의 추정 서금당의 초석과 통일신라의 사천왕사 금당후면 추정단석지의 초석이다. 이들은 돌기대신에 원형의 홈을 가지고 있다.

4. 공간위계에 따른 초석비교

4.1. 백제·신라에서의 위계표현

조사대상유적을 중심으로 백제사찰의 건물성격에 따른 초석 유형을 살펴보면 방형초석면의 초석은 금당·강당에서, 원형은 회랑 등 부속건물에서 발견되고 있다.¹⁸⁾ 능산리사지 강당이나 공방, 미륵사지의 승방 등의 건물구조는 동·서에 벽식구조로 생각되는 방형의 실을 둘러싸고 퇴칸 혹은 차양칸이 붙는 형식의 건물로서 대체로 벽체를 형성하는 곳에는 자연초석을, 둘러싸는 퇴칸에는 원형의 가공초석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외부로 드러나는 곳에는 가공초석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위계에 따라 위계가 높은 건물에는 방형초석면, 위계가 낮은 건물에는 원형초석면으로 가공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양재영·주남철은 방형의 초석 및 적심과 관련하여 방형의 단면을 갖는 기둥의 사용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고대에 보다 많은 가공을 필요로 하는 방형의 기둥이 보다 위계가 높은 곳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가정하기도 하였다.¹⁹⁾ 또한, 초석면의 형태는 바닥면과도 관련된 것으로 방형초석은 전돌 등의 마감음, 원형의 초석면은 회축, 또는 토축의 마감음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의례를 위한 정적인 공간과 생활을 위한 동적인 공간을 구분하여 초석면의 형태를 달리 사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륵사지 강당의 내진부와 건물의 전면 중심부에는 방형초석면, 측면퇴칸에는 원형초석면을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미륵사지의 강당과 회랑에는 주좌가 있는 초석이 사용되고 있으나, 조사대상유적가운데에서는 금당 등 중심건물에서는 주좌가 있는 초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좌는 모두 원형으로 초석의 위에는 주좌형태에 따라 원형기둥이 세워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은 원형주좌가 금당 등 위계가 높은 건물보다는 비교적 위계가 낮은 강당·회랑 등에 사용되어서 주좌가 격이 높은 건물에 사용되어 권위를 나타낸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된다. 더욱이 일본에 기술을 전파한 백제에서 7C 중기의 야마다테라[山田寺]에서와 같은 연화주좌 등의 장식된 초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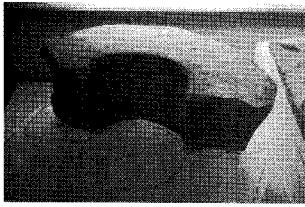
18)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초석은 상당수가 있으나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초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사례가 적어 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백제의 대표적인 초석형태로서 인식되는 방형초석면을 갖는 초석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9) 양재영·주남철, 한국고대건축의 기둥단면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0권 3호, 200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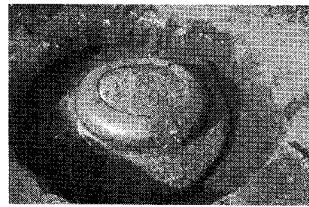
15) 井上滿郎, 古代の日本と渡來人, 明石書店, 1999, pp.71-100.

16) 岡田英男, 古代における建造物移築再用の様相, 文化財論叢, 同朋舎, 1983.

17) 이 건물은 후지하라큐우[藤原宮]의 대국전이 헤이조우쿄우를 거쳐 쿠니큐우로 옮겨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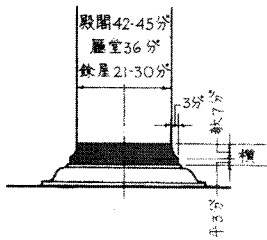


<그림 23> 풍납토성출토 10각 초석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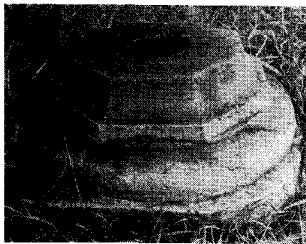


<그림 24> 상경용천부출토 초석장식 (국립중앙박물관)

이에 대한 해답의 가능성은 주질(柱攢)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주질사용은 그 직접적인 사례가 없으므로 사용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²⁰⁾과 일본²¹⁾에서는 초석과는 별개로 기둥과 초석사이에 주질이라는 별도의 부재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질로 볼 수 있는 유물이 풍납토성에서 출토되었다.²²⁾ 이 유물은 10각형으로 추정되는 토제품으로 크기는 폭 51cm, 높이 16cm이다. 또한 후대이긴 하



<그림 25> 주질(송, 영조법식)



<그림 26> 팔각주질초석 중국 강소 소주 나한원 대전(송)

지만 발해 상경용천부에서 발견된 초석장식 역시 고대의 주질 사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유사한 형태가 중국 송대의 소주 나한원 대전과 복건의 진태위궁 정전²³⁾에서도 보이고 있다.²⁴⁾ 이밖에 주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는 또 다른 유물로는 부여박물관에 소장된 백제 초석이다. 이 초석은 방형초석면만을 갖는 형태로 상면에는 거칠게 다듬어져 무엇인가를 얹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각형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 역시 주질을 얹었던 것으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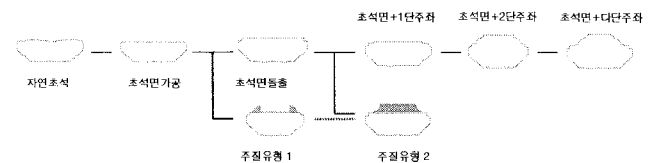
각된다. 따라서 위계가 높은 금당 등에 사용된 방형초석면만을 갖는 초석은 그 상면에 다양한 형태로 화려하게 장식된 주질을 둠으로서 위계에 따른 권위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라의 경우 6C 중기의 황룡사지에서는 회랑을 제외하면 위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건물에서 방형초석면만을 갖는 초석을 사용하고 있다. 또 7C 후기의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등에서는 대부분 건물에 방형초석면의 초석 또는 방형초석면과 원형주좌의 초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선사지에서는 원형초석면만을 갖는 형태의 초석이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것은 위계의 표현이 개개의 건물보다는 사찰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사천왕사지 등에서 보이는 방형초석면과 원형주좌를 갖는 형태



<그림 27> 고선사지 금당 초석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의 초석은 시간이 흐르며 2단의 주좌를 갖는 형태로 발전되고 고선사지 금당지에서는 여러 단의 주좌를 갖는 형태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1단의 주좌가 돌출되는 사례가 없이 바로 2단의 주좌가 돌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좌의 변천은 주질을 사용하기 보다는 주좌를 보다 장식화함으로써 위계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7C 후기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보편화되면서 건물의 위계와 상관없이 동일 건축유적 내에서 개별건물의 위계만이 아니라 건축유적 전체의 위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방형초석면 위에 2단 주좌의 초석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의 초석형태의 전개 과정을 주질의 사용가능성과 함께 정리하여 보면 <그림 2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8> 초석형태의 전개과정

4.2. 일본에서의 위계표현

최초의 사찰인 6C후기의 아스카데라에서는 모든 건물에 원형초석면의 초석이 사용되고 있으나 7C중기 야마다데라에서는 건물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초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금당과 회랑은 연화가 새겨진 초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의 시기에는 동일유적 내에서 건물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초석을 사용하는 경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8C 전기의 헤이조유쿠우에서는 가공초석과 함께 자연초석을 사용하면서 건물의 위계에 따라 위계가 낮은 건물에 자연초석의 사용이 두드러진다.²⁵⁾ 한편 아스카시대에 불교의 전래와 함께 전해진 석

20)중국 송나라때의 영조법식에서는 "...凡造柱下攢，徑周各出柱三分；厚十分，下三分爲平，其上並爲欹，上徑四周各殺三分，今與柱身通上勻平..."이라고 주질을 설명하고 있다.

21)일본에서 주질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은 초반(礎盤)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서는 "선종양건축에 있어서 초석위에 직접 놓고 독립주를 받는 가공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武井豊治, 古建築辭典, 理工學社, 2002, p.142.

22)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풍납동 197번지 일대 대형폐기장에서 토제 십각형초석편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중부권 문화유산조사단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상태는 상하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04.12.22

23)張十慶, 福建羅源陳太尉宮建築, 「文物」總第512期, 文物出版社, 1999.01.

24)이러한 주질은 주로 중국남방건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백제는 당시에 중국의 남조와 북조, 그리고 일본 등과 폭넓은 해외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攢是一塊圓木析，墊在柱脚之下，柱礎之上。...現在南方建築中還有這種做法。"

于志公 編, 梁思成全集 第7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1, p.137.

공기기술은 화강암을 대상으로 한 기술로 이런 고급기술이 사용된 초석은 주로 금당 등 중심건물에 한정되었으며 회랑 등의 부속건물에는 응회암 등의 가공이 쉬운 석재를 사용하였다.²⁵⁾ 따라서 건물위계에 따른 초석의 사용은 초석의 형태만이 아니라 석질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화강암을 주로 사용하였던 우리나라와는 비교된다.

한편 8C중기 이후에는 건물의 위계와는 상관없이 금당과 목탑 등 중심건물에도 자연초석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건물의 위계에 따른 초석의 사용은 사라졌다. 이는 석재의 가공보다는 가공이 쉬운 목재로 건물을 화려하게 건립함으로써 위계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의 주절은 가마쿠라시대 이후 선종양식 건물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여 다시 건축의장요소로서 활용되었다.

4.3. 백제 · 신라 · 일본의 공간위계의 표현비교

고대의 백제, 신라 그리고 일본은 건축적 표현이 다른 만큼 초석을 통한 공간의 위계표현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백제에서는 의례를 위한 정적공간에는 방형초석면의 초석을, 생활적 동적공간에는 원형초석면의 초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심건물보다는 부속건물에서 주좌초석이 사용되었다. 또한, 신라에서는 동일유적 내에서는 같은 형태의 초석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건물의 위계에 따라 초석의 크기로 차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위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주좌의 단수를 높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심건물에 가공초석을, 부속건물에서는 자연초석을 사용하였으며 주좌는 위계가 높은 건물에만 사용하였다. 더욱이 화강암을 사용하는 백제, 신라와는 달리 공간의 위계에 따라 석질이 서로 다른 초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그 위계의 순서는 화강암>응회암>안산암 순이었다. 그러나 8세기에 들어서면 가공초석보다는 자연초석을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공간의 위계표현의 요소로서 초석보다는 단청이나 금구(金具) 등의 장식요소를 추가하여 위계를 표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초석이 이후시기까지 위계의 표현요소로서 사용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강암 가공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였으며 석재의 수급이 어려웠던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초석을 통한 공간위계 표현방법 비교

| | 백제 | 신라 | 일본 |
|------|------------|----------------|----------------|
| 중심건물 | 방형초석, 주좌사용 | 다단의 주좌 크기 대(大) | 주좌사용, 화강암 |
| 부속건물 | 원형초석, 주좌사용 | 2단의 주좌 크기 소(小) | 자연초석, 응회암, 안산암 |

25) 高橋克壽, 基壇及び礎石の復原研究, 特別史蹟平城宮跡第一次大極殿地區復原整備に關する調査檢討報告書,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26) 和田晴吾, 石造物と石工, 専門技能と技術, 岩波書店, 2006, pp.72-78.

5. 결론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에서의 가공초석은 6C 유적의 일부 중심건물에만 사용되었으나 7C의 유적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에 사용되었다. 주좌는 7C중기 유적부터 사용되었으며 원형의 1단만을 돌출시켰다. 공간의 위계는 위계가 높은 건물에는 방형초석면의 초석을, 부속건물에서는 원형초석면의 초석을 사용하였다. 주좌는 중심건물보다는 부속건물에 사용되어 생활을 위한 동적공간에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위계가 높은 건물에는 주절을 통하여 위계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신라에서는 방형·원형의 초석면만의 초석이 사용되었으나 통일 이후 7C후기의 유적부터는 2단의 주좌를 갖는 초석이 사용되었다. 공간의 위계는 초석의 크기와 주좌의 단수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셋째, 일본에서는 방형초석면보다는 원형초석면의 초석이 보다 일반적이었으며 방형초석면은 7C중기~8C전기의 유적에서 사용되었다. 주좌는 7C중기~7C후기의 유적에서 나타난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에 따른 도래인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7C중기~8C전기의 일본에서는 건물의 위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석질의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주좌는 위계가 높은 건물에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백제·신라·일본은 초석을 통한 공간위계의 표현방법이 서로 달랐으며 이는 고대의 각 국가의 공간위계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결과는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수의 유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향후 보다 많은 건축유적의 발굴에 따라 축적되는 자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이왕기, 백제사찰건축의 조형과 기술, 주류성, 2006
2. 박언근, 한국건축사강록, 문운당, 1998
3.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8
4. 장기인, 석조, 보성각, 1997
5.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79
6. 박재평, 한국 고대건축 구성요소의 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박론, 2002
7. 이호석, 한국목조건축의 주초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론, 1976
8. 김상태,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1호, 2007.2
9. 조선중세건축유적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5
10.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11. 손광구, 아스카사의 고구려적 성격, 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9.03
12. 藤井惠介·玉井哲雄, 建築の歴史, 中央公論新社, 2006
13. 井上滿郎, 古代の日本と渡來人, 明石書店, 1999
14. 黃壽永·田村圓澄 編, 百濟文化と飛鳥文化, 吉川弘文館, 1978
15. 大川清 編, 百濟の考古學, 雄山閣, 1972
16. 和田晴吾, 石造物と石工, 専門技能と技術, 岩波書店, 2006
17. 高橋克壽, 基壇及び礎石の復原研究, 特別史蹟平城宮跡第一次大極殿地區復原整備に關する調査檢討報告書,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18. 岡田英男, 古代における建造物移築再用の様相, 文化財論叢, 同朋舎, 1983

<접수 : 2008. 10. 28>